

불영사 국제명상원 '線·善·禪' 설립

2017년 완공예정...1200평 규모



불영사(주지 일운·사진)가 국제명상원 '線·善·禪'을 설립한다. 2017년 완공 예정인 국제명상원은 지상 3층에 1200평규모로 일반 명상실과 계단식 명상실, 실내 명상포장이 가능한 설계로 조성될 예정이다. 불영사는 지난 5월 18일 설립에 관한 1차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구조와 효율적인 운영안에 대한 추가적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주지 일운 스님은 "자신을 바로 깨달았을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매 순간순간 깨어있음이 우리 삶에서 진정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누

구든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 참마음을 찾기 운동으로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깨달아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국제명상원을 설립하게 되었다"며 설립취지를 설명했다.

참마음 찾는 운동 전개 목적
윤경식 건축가 설계 맡아

불영계곡 입구 동편에 들어설 예정인 불영사 국제명상원의 설계는 건축디자인사 윤경식 건축가가 맡았다.

세계적인 건축가로 주목받고 있는 윤경식 건축가는 지난 30년 동안 자연친화적인 설계와 전통미 그리



불영사가 2017년 경 국제명상원을 건립한다. 사진은 조감도

고, 현대적인 세련미를 조화롭게 녹여내는 독창적인 건축기법으로 각광받아 왔다.

윤경식 건축가가 기획한 국제명상원의 전체적인 모습은 부처님의 밝은 지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3차원설계기법이 적용된다. 또한 명상삼매에 든 부처님께서 눈을 감은 채 신구의의 변화를 관찰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054)782-928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탈핵은 생명 존엄성 지키는 길

원전 위험성 알리는 행사 열기 '후끈'

생명을 위협하는 원자핵의 위험성과 대책 마련 방안을 알리고자 불교계가 나섰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와 한국민족문화연구원 등은 5월 24일 부산대 인덕관에서 2014년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원자핵 개발과 생명의 위기에 대한 불교적 관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대회는 전문가들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반아불교문화연구원장 지안 스님은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과거 가치를 현 사회 '원자핵'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됐으면 한다"며 개최사를 전했다.

제2부 학술발표에서는 김익중 동국대 교수가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그 대안적 과제'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동국대 교수 법현 스님이 '불교적 관점에서 본 원자력과 생명,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로 경전의 예를 들어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교원대 박병기 교수도 '한국 사회의 에너지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불교 윤리적 대안'을, 부산대 윤종갑 교수는 '현대 과학기술과 생명의 위기에 대한 불교적 조망'을 각각 발표했다. 이와함께 5월 26일에는 부산의 원전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알리고자 불교생명윤리학회(대표 홍선)와 탈핵에너지연구소(대표 공동태 노진철)가 부산광역시



2014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동국대 김익중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 원전안전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불교생명윤리학회와 탈핵에너지연구소모임은 "노후된 고리 1호기 연장 가동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민족의 터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확고한 정부의 의지와 부산시의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마련한 취지를 밝혔다. 김나영 객원기자

일본불교도협회 부산시청 세월호 분향소 방문

추모와 희망 담긴 서신 전달... 염불로 왕생극락 발원



ASA스님들이 5월 27일 부산시청서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염불을 독송하고 있다.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와 활발한 청소년불교교류를 하고 있는 일본불교도협회(Asia Buddhist Association, 이하

ABA·이사장 우시모 미야하라)스님들이 5월 27일 부산시청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일본에서 온 스님들은 2박 3일 동안 문화탐방 차 방문했으나 세월호 희생자들을 안타깝게 여겨 이러한 일정을 마련했다.

지난 26일 여수의 진남관과 충민사, 추모공 이순신 장군 유적지 등을 앞서 둘러본 스님들은 지난 27일 합동분향소에서 국화꽃과 향을 올리고 일본 고유의 염불로 단원과 학생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했다. 또한, 애절한 마음과 국가적인 아픔을 하루속히 극복하기를 희망하는 서신을 부산광역시의회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공식적인 추모의 뜻을 표했다.

이번 방문일정을 기획한 백명숙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은 "부산파라미타는 ABA스님들과 청소년 불교문화를 위해 활발히 교류

하고 있다. 한국 청소년을 애뜻하게 아껴주시고, 이렇게 뜻 깊은 발걸음을 해주신 스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ABA 전무이사 후지이기에이 스님은 "한국의 청소년들과 교류를 해오던 입장에서 희생자가 된 단원과 학생들의 부모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또한 전달한 서한에 대해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고, 슬픔을 넘어서 유가족들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ABA와 지난 2010년부터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청소년불교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김나영 객원기자

"차로 삶에 향기 더하세요"

금어사 부산동래 제 20회 차밭골문화제

부산 동래 금어사(주지 월강)가 제 20회 부산동래차밭골문화제를 5월 24일 금어사 및 금강공원 일대에서 봉행했다. 육법공양으로 막을 올린 이번 문화제에는 세월호 희생 영가들을 위한 목념이 본식이 앞서 진행됐다.

주지 월강스님은 "동래차밭골문화제가 벌써 20화제를 맞았다. 지금까지 계신 여러분들뿐 만 아니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장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통도사 부주지 재원 스님은 "이 자리에 동참하

신 여러분은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다인들이 금어사에서 재배한 차로 향상 받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순신 시인의 사회로 진행된 제2부에서는 본격적인 차 시연이 양은순 부산동래차밭골 다래원 원장의 지도로 진행됐으며 김영옥 부산어류시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문화와 문학단체 시인들이 시를 낭송해 차의 풍미를 더 했다. 또한, 제3부에서는 차밭골문화제의 주요 행사인 백일장이 펼쳐졌다. 한편, 이날 차밭골



제 20회 부산동래 차밭골문화제 장면

문화제에는 천주교 원로 김계준 신부 등 이웃 종교 지도자들과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화랑 세속오계의 현대적 해석

제 1회 운문사 원광화랑연구소 학술세미나

운문사 원광화랑연구소(소장 일진은)는 5월 25일 오전 운문사 선영관에서 '화랑세속오계의 현대적 해석'이란 주제로 제1회 운문사 원광화랑연구소 주관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광화랑연구소 소속 각 위원회와 운문승가대학 학인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 운문사 원광화랑연구소 소장 일진 스님(운문사 주지)은 "화랑오계를 전한 원광국사가 중창한 이 도량에서 학술세미나를 통하여 화랑세속오계가 새 청년정신으

로 다시 태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은 "운문사는 신라 진흥왕 18년에 창건된 고찰로 화랑오계를 전한 원광국사가 중창한 도량이다. 그후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선사등 많은 고승대학인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원광법사의 정신을 되살리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세미나가 더욱 알찬 결실을 맺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한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학술세미나는 △김남경 경북대학교



원광화랑연구소 학술세미나 장면

수를 좌장으로 임승택(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초기불교에 비추어 본 세속오계의 배경과 근거' △김성규(영남대학교)교수는 '새천년 청년정신을 위한 화랑세속오계의 현대적 해석'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한편, 운문사 원광화랑연구소는 2013년 9월 24일 현판식에 이어 그 해 11월 16일 '원광법사와 화랑정신, 새천년 청년정신을 꿈꾸다'라는 개소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손은철 대구지사장

동명대 '국외입양인 모국방문캠프'... 총 10개국 26명 참가

다도·한복입기·명상 등

부산 동명대학교(총장 설동근)와 (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 회장 정애리)가 주최한 '국외입양인 모국방문캠프'가 5월 26일~28일 동명대 세계선센터(선원장, 수진)에서 열렸다. 미국, 호주, 프랑스 등 총 10개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동명대 학생 26명과 함께 세계선센터에서 다도 및 한복입기, 명상 등을 체험했다.

InKAS 정애리 회장은 "일행 대부분이 입양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며 "이번 세계선센터에서의 경험이 한국에 대해 한층 더 밝



동명대 선센터에서 다도체험 전 명상하고 있는 참가자들

은 인식을 준 것 같다"고 밝혔다. 참가자들과 함께 다도체험에 나선 설동근 총장은 "각국의 젊은이들이 친목을 쌓고 교류하는 뜻 깊은 행사로 동명대 학생들이 지역봉사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선센터에서 한국 문화체험을 끝낸 참가자들은 1대1 결연을 맺은 동명대 학생과 함께 캠프투어 및 동아리방 방문 등 다양한 버디투어(buddy tour)에 참여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경전사경

1호 반야심경(한문) 3,500원(50권 이상)

2호 금강경(한문) 5,000원(1권)

3호 반야심경(한글) 3,500원(50권 이상)

4호 금강경(한글) 5,000원(1권)

금지 관음도 액자 6종

할인가 20,000원 (10점 이상) 정가 30,000원

•포 장 : 골판지 •크 기 : 38cm×58cm

금지 관음도 액자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할인가 800 (100벌 이상)

할인가 700 (100벌 이상)

할인가 800 (200개 이상)

할인가 160 (600개 이상)

할인가 900원

할인가 1,000원

할인가 200원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종이신발(남/여) 1켤레 1,300원 정가 1,600원

할인가 250원 / @250원 (1000개 이상)

할인가 27,000원 (100벌) @240원 (1000벌 이상)

양초 합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밀 대 (70개입) @90,000원 (2BOX 이상)

돈타레 (40개입) @90,000원 (2BOX 이상)

원기둥 (20개입) @90,000원 (2BOX 이상)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